

기획

영국 사투리를 쓰는 한국 청년 ‘코리안 빌리’를 만나다

유튜브 스타 공성재 동문

설지연 기자 jy0622@khu.ac.kr

영국 사투리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영상으로 화제가 된 한국 청년이 있다. ‘영국 사투리’ 유튜브 영상으로 영국에서 화제가 된 후, BBC 방송에 출연하고 케임브리지 대학의 초청을 받는 등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이 한국 청년은 ‘코리안빌리(KoreanBilly)’라는 유튜버(YouTuber)이다. 채널 구독자만 5만 명이 넘을 정도로 많은 사랑 받고 있는 코리안빌리, 공성재(국제학 2010) 동문을 만났다.

유튜버로 활약하고 있는 공 동문의 원래 꿈은 방송기자였다. 재학 중에는 국제캠퍼스 방송국 대학의 소리 ‘V.O.U’에서 아나운서로 활동할 만큼 방송 일에 관심이 많았다. 졸업을 앞두고 대부분의 학생이 그러하듯 취업 전선에 나섰지만 일은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방송국이 없다면 직접 그 방송국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어요” 공 동문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이유다.

처음에 그는 전공을 살려 영어나 영국문화화를 주제로 영상을 만들었다. ‘미국 영어와 영국 영어의 차이’, ‘영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슬랭(Slangs)’과 같은 영상들이었다. 참신한 주제를 찾던 중 4학년 당시 교환학생 신분으로 다녀온 영국 북서부 지방의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가 떠올랐다. 평소 품고 있던 영국에 대한 동경 때문일까, 그는 런던과 멀리 떨어진 대학으로 교환학생을 떠났다. 그리고 이곳에서 영국 사투리를 배웠다. “섬나라인 영국에 다양한 사투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흥미롭고 그런 사투리들이 각자의 개성을 지닌 채 잘 보존돼 있다는 사실에 관심이 갔어요”

공 동문은 표준 영국식 영어와 사투리를 비교하는 영상을 제작했다. 표준식 영어와 리버풀 사투리의 악센트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고 발음의 차이를 직접 보여주는 형식이었다. 반응은 뜨거웠다. 조회수가 50만 회에 다다를 정도로 화제가 됐다. 정제 모를 아시아 청년이 영국 사투리를 맛깔나게 구사하고 있었다. 많은 영국인들이 공 군을 주목하게 된 이유이다. 그가 사투리를 구사하는 영상은 BBC 방송의 오락프로그램인 ‘Have I Got A Bit More News For You’에도 소개됐다. 출연자들은 그의 영상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인기가 높아지자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초대장이 왔다. ‘발음사전’ 발간 100주년을 맞아 기념 영상을 공 동문과 함께 찍고 싶다는 것이다. 그간 사전이 지니고 있던 ‘지루하고 두꺼운 책’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고자 케임브리지 대학은 유튜브 스타인 그와 함께 사전 홍보 영상을 제작하길 원했다.

그는 다시 찾은 영국에서 사전을 만드는 방법, 사전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설명, 영어에 대해 논의를 나누는 영상을 촬영했다. 영국이 좋아 영국으로 교환학생을 떠났던 청년이, 영국에서의 경험으로 사랑을 받고 이전 초청을 받아 영국에 가게 된 것이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만든 교재로 영어 공부를 했는데 그런 곳에서 초청을 받으니까 정말 기분이 묘했어요. 영어에 대해 원 없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 곳에서의 경험을 회상하는 그의 얼굴에는 행복 가득한 미소가 떠나질 않는다.

보통의 성공스토리들이 그렇듯, 그의 채널이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영상을 제작하는 전 과정을 혼자 하고 있기에 처음에는 영상 제작 자체가 큰 어려움이었고 한다. 영상에 대해 쉴 새 없이 고민해야 하는 점도 스트레스가 되곤 했다. 그렇지만 고생해서 만든 만큼 영상 하나하나에 애착이 간다는 공 동문은, 이제 영상을 만드는 일에 제법 익숙해져 재미가 붙었다고 한다.

“되곤 시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자는 시간 빼고는 영상에 대해 생각하고 일을 해야 한다는 점이 힘들지만, 고생 끝에 재밌는 영상이 탄생했을 때 즐거움을 느껴요”

많은 영상 가운데서도 가장 애착이 가는 것은 그에게 지금의 유명세를 안겨 준 ‘리버풀 사투리 영상’이다. 애착이 가는 만큼 아쉬움도 많은 영상이기도 하다. “반년 전에 제작한 영상인데 지금 보면 부족한 점이 많이 보여요. 짧은 시간인데 그 때보다 실력이 늘긴 늘었나 봐요.”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영상 제작에 대한 열의가 엿보인다.

그는 대학생 때 했던 많은 경험들이 지금 자신에게 소중한 자산이 됐다고 말한다. 대학시절 하고 싶은 일들을 실행 해봤다는 공 동문은 V.O.U. 아나운서로 활발히 활동했으며 다른 학과의 수업을 들었다. 평소 공부하고 싶었던 언론정보학과 수업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학부 수업을 들으며 다른 분야에 대해 시각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 인터뷰 중인 공성재(국제학 2010)동문 (사진= 정현진 기자) ▼ 영국 공영방송 뉴스 BBC Points West에 소개된 코리안 빌리

됐고,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영상 제작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지금 하는 일이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이라는 공 동문은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의 꿈이라 답했다.

“제가 영상을 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 거리를 던져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즐거워요. 제 영상에 나온 주제에 대해 사람

들이 이야기하거나 그 주제에 대해 배우려고 할 때 보람차거든요. 제가 좋아하고 재능이 있는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사실이 행복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영상을 제작하는 활동을 계속 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부탁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시작부터 완벽하게 하려다 포기하는 분

들을 봤어요. 그렇지만 시작은 서툴러도 되니까 많은 경험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대학시절 경험 중에 나중에 도움이 안 되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아 충분히 즐겼으면 좋겠어요”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의 도전의식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



경희대학교 평생교육원

요가 필라테스 봄학기 교육 과정 안내

▶▶ 일반 & 기구과정

다이어트와 자세교정, 통증 치유를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

요가 & 필라테스 ★ 수시접수 가능 / 경희대생 할인

교육기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07:00~07:50 Morning	요가 (Easy)	필라테스 (매트)	요가 (빈야사 Lv.1)	필라테스 (소도구)	요가 (빈야사 Lv.2)
12:00~12:50	요가 (Dr. Jung 빈야사)	필라테스 (Power)	요가 (빈야사 Lv.1)	필라테스 (Power)	요가 (빈야사 Lv.2)
14:00~14:50	*	아쉬탕가 마이솔 (매니아 과정)	*	아쉬탕가 마이솔 (매니아 과정)	*
15:00~15:50					
18:00~18:50	요가 (빈야사 Lv.1)	필라테스 (매트)	요가 (아쉬탕가)	필라테스 (매트)	요가 (빈야사 Lv.1)
19:00~19:50	*	요가 (빈야사 Lv.1)	*	요가 (빈야사 Lv.2)	*

필라테스 기구 [그룹레슨]

교육기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10:00~10:50	그룹A		그룹A		
11:00~11:50	그룹B	그룹E	그룹B	그룹E	
12:00~12:50	그룹C		그룹C		
18:00~18:50		그룹F		그룹F	
19:00~19:50	그룹D	그룹G	그룹D	그룹G	

★ 1:1 개인, 2:1 듀엣 별도 문의



지도자 과정 (요가, 필라테스 자격증 취득)

초보자를 위한 맞춤 프로그램
개인레슨 3회 기적 [EVENT]

www.khuyogapilates.com
cafe.naver.com/drjungyoga

